

STRATEGY 21

통권37호 Vol.18, No.2, Autumn 2015

## 특별기고 / 대한민국 해군창설 : 회고와 당부

함명수\*

- 
- I. 시작하는 글
  
  - II. 창군 과제와 성과
    - 1.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
    - 2. 숙군(肅軍)
    - 3. 몽금포작전
    - 4. 대한해협해전 승전보
  
  - III. 6·25전쟁과 대한민국 해군작전 성과
    - 1. 육군 제17연대 구출작전
    - 2. 한국은행 지금 방출
    - 3. 해군작전통제권 예하부대 이양
    - 4. UN 해군작전과 한국 해군
    - 5. 해상수송작전
  
  - IV.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동맹 공고화
  
  - V.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잠수함 필요성
  
  - VI. 맺는 글
- 

\* 제7대 해군참모총장

## I. 시작하는 글

대한민국 해군창설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힘찬 출발이자, 모든 역경을 극복한 성공사례이며, 전례에 드문 발전모델이다. 해방 이후 창군과정에서 접한 이념대립, 재정적 어려움, 열세한 전력구조,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 하에 맞이한 6·25전쟁 그리고 휴전에 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상존 등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러 세계 속의 위대한 해군 위상에 이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창군기 이후 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던 연안해군 또는 열세한 해군력에서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키고 역내 안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국 해군의 발전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군을 믿고 지원해 준 결과이자, 해군 구성원인 해군 전 장병이 노력한 성과물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이러한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를 뛰어 넘어 위대한 미래 국가발전을 수호하는 국가 전략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믿어야 한다.

## II. 창군 과제와 성과

### 1.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sup>1)</sup>

8·15 해방이 곧 자주독립으로 착각한 우리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정국(政局)이 혼미(昏迷)한 상태에 빠져 있던 해방공간(解放空間)에서 출발한 우리 국군을 “배 없는 해군, 장비 없는 육군, 비행기 없는 공군”이라고 말한 사가(史家)들의 논평은 결코 허구(虛構)가 아니었다. 특히 패전(敗戰)을 맞은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의 안전 귀국을 보장받고, 후일 조선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지낸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呂運亨) 위원장에게 치안을 넘겨주고 한반도에서

1) 함명수, 『바다로 세계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참조.

빠져나갔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1945년 11월 11일 서울 관훈동 옛 표훈전에서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海防兵團)을 창단했다. 그리고 바로 간부(장교) 양성을 위하여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에서 생도를 서울, 부산, 진해 등 전국 각지에서 모집하였는데 필자는 서울에서 응시하여 합격자 명단의 말석을 차지했다. 해군은 3군 중 가장 먼저 출발하였으나 인적·물적 자원은 전무했다. 육군과 공군의 경우,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만주 또는 중국 군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 있었지만, 우리 해군은 외국 사관학교 출신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기본 자산인 군함 역시 단 한 척도 없었다.

해군사관학교 1기생들은 함상실습 차 미 7함대 구축함에 파견되었을 때, 처음으로 5인치 포가 달린 구축함을 타 보았다. 필자와 동기생 김기룡 사관생도는 CIC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 당시에는 헌병(憲兵)이 MP (military police), 방첩대(防諜隊)가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라는 단어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미 해군 구축함에서 처음 접한 CIC가 Combat Information Center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구축함 함장 이하 전 승조장병들은 한국해군 생도들에게 친절하였고, 오늘날 필자가 인터넷 도메인 ID로 사용하고 있는 spike도 당시 미 구축함 함장이 내게 붙여 준 별명이다.

이처럼 무(無)에서 출발한 우리 해군이 지난 2011년 1월 아덴만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의 1만 톤 급 상선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대양(大洋) 해군으로서의 면모(面貌)를 세계에 과시했다. 오늘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의 격언(格言)을 상기하면서, 해군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망각(忘却)의 늪 속에서 이삭줍기를 하는 심정으로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지나온 뱃길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속군(肅軍)

창군 당시 남로당(공산당)은 일반 사회는 물론 그 조직을 군 내부까지 깊이

침투시켜 군의 반란과 함정 납북(拉北) 등 만행(蠻行)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미 군정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여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 제정, 제헌국회(制憲國會)의원들을 뽑는 총선(總選)을 5월 10일에 단행한다는 것을 공포했다.

그러자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당의 격렬한 시위가 4월 3일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소위 4·3사건이다. 총선을 3일 앞둔 5월 7일, 우리 해군(당시는 조선해안경비대)의 JMS(일본제 소해정) 통천정이 동해경비 중 내부에 잠복하고 있던 공산분자들이 정장과 부장을 살해하고 38선 이북으로 납북했다. 3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 1개 선거구만이 간신히 마친 총선(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무효) 직후인 5월 15일에는 YMS(미국제 소해정) 고원정이 내부의 공산분자들에 의해 납북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당시 조선경비대인 육군에서도 일어났다.

1948년 6월 18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문상길 중위 일대에 암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광복절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은 해군과 육군으로 정식 출발하였으나, 내부 공산분자들의 분열 공작은 계속되었다.(공군은 1949년 독립). 정부는 내홍(內訌)이 계속되고 있던 제주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수의 육군 제14연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였으나 내부에 잠복하고 있던 공산분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출동이 좌절되고 이 사건은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와 군 수뇌부에 숙군(肅軍)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해군의 몽금포작전도 바로 이러한 숙군작업의 일환이었다.

군 수뇌부가 숙군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1948년 김태선 치안국장(서울시장 역임)은 군 내부 좌익분자들의 활동에 대한 극비 정보자료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경악(驚愕)한 대통령은 바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을 경무대로 불러 “당신네가 국군을 만들면서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바람에 군 내부가 이지경이 되고 말았소. 전적으로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십시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로버츠 준장은 이 문서를 이용준 육군참모총장에게 넘겨주며 그 대책을 상의했다.

육군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 현병사령관 신상철 대령이 오전 1시경 이용준 육군참모총장의 안암동 관사로 불려갔다. 이 총장은 문서의 출처와 경위를 설명해주며 “극비리에 숙군작업을 진행시키시오.”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건네 받

은 문서는 이불 보따리만큼이나 많은 방대한 분량이었다.<sup>2)</sup>

이응준 육군참모총장도 그의 자서전 『회고 90년』(1982)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십 수 명과 함께 개성, 백천, 연안 등지의 38선 경비현황을 시찰하고 일몰 후 돌아왔다. 귀가 직후 집안사람들이 ‘귀가가 늦더라도 곧 고문관 로버츠 장군이 와 달라고 하는군요.’ 나는 바로 로버츠 장군에게 갔다. 그는 상당히 큰 부피의 서류를 내어 놓았다. ‘이것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서류인데 군내 불순분자들의 명부라고 합니다. 당신이 참모총장이니 이것을 직접 조치 하시오. 그리고 조치 도중이나 조치 후의 보고는 다른 사람을 경유하지 말고 직접 대통령에게 해 달라고 하니 그리 아시오.’라고 말했다.”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없다지만, 건국 초창기 사상적으로 혼미(昏迷)한 상태에 빠졌던 우리 군의 숙군작업이 없었더라면 6·25전쟁에서 우리 군이 내부의 혼란, 반란, 명령불복종 등으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는 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 3. 몽금포작전<sup>3)</sup>

1945년 해방병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우리 해군은 지난 70년 동안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後裔)로서 조국의 바다를 지켜왔다. 필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과 더불어 충무공정(PG-313) 부장으로 해군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중위 진급과 동시 충무공 3대 정장 (초대 박홍철 중위, 2대 이희정 대위)으로 임명되어 남해 경비출동 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인민해방군’이라고 칭하며 도내 15개 경찰지소 중 14개 지소를 동시에 급습한 그들의 무기의 출처가 궁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주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군과 최후의 결전을 할 장소로 5만여 명의 병력과 이에 필요한 수많은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미군과 결전

2) 백선엽, 『군과 나』 (서울: 시대정신, 2009.), 413쪽.

3) 임성채 외 3명 공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참조.

전에 항복한 일본군은 그 막대한 무기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귀국하였으니 그 무기들이 바로 ‘인민해방군’의 전유물이 되었던 것이다.

소령 시절 해군의 숙군책임자로 지명된 필자는 깊은 번민과 고뇌(苦惱) 속에서 보낸 세월을 잊을 수가 없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필자의 후배들인 소해정 (JMS, YMS)의 해사 2기생 부장들이었고 정장들도 해사 1기생인 동기생들이었기 때문이다. ‘5·11사건’으로 불리는 YMS-508정의 납북사건은 1949년 5월 11일 508정 부장인 해사 2기생 이송학 소위가 1기생 정장 이기중 소령과 전대사령 황운서 중령을 사살하고 원산으로 월북한 사건이다. 필자는 즉시 동해첩보대장에게 보복을 지시하였지만 실패했다.

다행히도 납북을 미연에 방지한 사건도 있었다. 바로 JMS-302정의 경우이다. 당시 302정의 정장은 필자의 해사 동기인 공정식 소령(제6대 해병대 사령관 역임)으로 부장은 2기생 김점복 소위였다. 5·11사건 얼마 후인 5월 15일 남로당으로부터 부산에 정박 중인 302정의 납북지령을 받은 부장 김점복 소위는 정내 동조 세력과 5월 20일 공정식 정장이 퇴근한 후 야간에 납북을 결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기관사 황명호 병조장 등 일부 승조원들이 일부러 기관을 고장내어 김점복 소위 일당의 만행을 저지했다. 해군은 즉시 이들에게 특진과 표창을 수여했다. 정장 공정식 소령은 몽금포작전에서 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필자를 구조하여 준 해사 동기이자 전우이다.

1949년 5월 5일,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38선을 경비 중이던 육군 2개 대대가 대대장 인솔 하에 월북한 사건이 발생하자 내외적으로 긴장과 불안 상태가 고조되었다. 대대장 강태무와 표무원의 성을 딴 소위 ‘강·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장군은 바로 인책 해임되었다. 강·표 사건의 여운(餘韻)이 남아있던 1949년 8월 10일, 해군 인천경비부가 관리하고 있던 군 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의 전용보트가 행방불명되었다. 필자는 즉시 서해첩보대장 이태영 소령에게 보트의 행방수색을 지시했다. 인천경비부사령관 민영구 중령도 제1정대 함정을 동원하여 조사에 나섰다.

당시 해군은 정부수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6일 인천에서 거행할 관함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손원일 참모총장은 사건보고 차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를 찾았다. 당시 주무참모로서 참모총장을 수행한 필자는 사건의 사전보고를 이미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노기(怒氣)를 눈으로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이 때 필자는 마음 속 깊이 보복작전을 결심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서해첩보대장 이태영 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황해

도 해주 서남방에 위치한 몽금포항에 계류되어 있는 로버츠 장군의 전용보트를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내밀면서 동해에서 508정 보복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 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보복작전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 필자는 이 소령과 함께 참모총장실로 달려갔다. 몽금포항에 계류 중인 로버츠 장군의 보트를 탈환하거나 불가시에는 이를 폭파하기 위해 이 소령이 지휘하는 첩보부대는 육상으로 그리고 필자는 셋별호(정보 공작선)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침투한다는 보복작전의 개요를 보고하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 해사 동기생인 이 소령과 필자는 머리를 맞대며 세부 작전계획을 세웠다. 저녁에는 본부 옆 명동거리의 천막 포장마차에서 소주 잔을 기울이며 우리의 성공을 기원했다. 당시 천막 주점을 밝히던 희미한 가스 등불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이 보복작전은 비밀유지를 위한 첩보부대 단독작전을 개진한 필자의 의견보다 작전의 성공률이 높다는 일부의 건의에 따라 참모총장은 함정들의 엄호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8월 16일 인천에서의 관함식을 마친 주요 지휘관들은 시내 용궁각(龍宮閣)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손원일 제독은 몽금포보복작전을 이용한 중령(4대 해군참모총장 역임) 지휘 하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순(一瞬) 술자리는 숙연해졌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적지로 출동해야 할 필자에게는 성공적인 자전구상만이 전신의 신경을 점령하고 있었다.

제1정대사령 이용운 중령 지휘 하에 기함 충무공정(정장 : 이종철 소령)을 위시하여 JMS-301, 302, 307, 309와 YMS-503정이 인천항을 출항한 시간은 8월 16일 새벽 2시였다.<sup>4)</sup> 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장산곶 서방을 우회하여 몽금포 앞바다에 도착한 시간은 8월 17일 오전 6시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항구에 접근하는 우리 함정을 발견한 인민군의 해안 포대가 포문을 열자 우리 함정과의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빗발치는 탄막(彈幕) 속에서 민첩하게 침투보트에 몸을 실은 우리 특공대는 항내로 돌진했다. 그러나 문제의 로버츠 장군의 보트가 보이지 않았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보트는 이미 진남포로 옮겨져 있었다.

특공대를 지휘하던 필자는 양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바다로 떨어졌다. 외항에서 필자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한 302 정장 공정식 소령은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항내로 302정을 몰고 들어와 필자를 구조하고 군의관이 있는 충무공정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충무공정 군의관은 충무공정 3대 정장을

4) YMS-503 정장 남철 소령과 JMS-309 정장 김남교 소령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정장들은 필자의 동기생인 해사 1기생 소령들이었다.

역임한 필자의 혈액형을 알고 있어 출혈이 심한 필자에 대한 수혈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었다. 공정식 소령은 적 함정 4척을 격파하고, 북한군 군관을 포함한 인민군 5명을 생포하고, 경비정 18호를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보복작전 이후 북한은 더 이상 우리 함정의 납북을 시도하지 못했다. 훗날 몽금포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평양사범 동기생인 이근삼(李根三) 서강대 교수는 ‘몽금포에 핀 아름다운 한 송이 꽃, 이름하여 전우애(戰友愛)’라는 제목의 글을 써 주기도 했다.

우리 해군은 6·25전쟁 발발 이전 38도선 이북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작전이란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몽금포 보복작전을 역사의 전면에 들어내지 않았다. 당시 작전상황에 대한 일부 기록을 보면 모선을 출발한 보트 4척이 기관 고장으로 보복작전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선(死線)을 넘나들어야 하는 특공대가 장비 정비를 적당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38선을 넘어 작전을 지휘한 이용운 중령이 미국의 항의로 여수기지사령관으로 좌천되었다고도 하지만 이용운 중령은 숙군 당시 여수정대사령 재직 중에 방첩대의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의문점이다.

북한이 6·25전쟁에 대한 북침설의 근거로 몽금포 보복작전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다.<sup>5)</sup> 이용운 중령이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전역 후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기자회견을 통하여 몽금포작전을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 자랑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그가 몽금포 작전은 6·25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8월 16일 용궁각(龍宮閣) 만찬에 참석했던 해군 5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성호 중령도 몽금포보복작전은 실행과정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고했다.

#### 4. 대한해협해전 승전보<sup>6)</sup>

6·25전쟁 발발 다음날 우리 해군의 백두산함이 부산 앞바다의 대한해협 해전에서 최초의 승전보가 없었더라면 꺼져 가던 대한민국의 등불을 다시 일

5) 1977년 불가리아(Bulgaria)의 수도 소피아(Sofia)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IPU :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필자는 신경질적인 북한 대표들(LI Chang Sun, KIM Jae Bong, KIM Chang Hoon)과 6·25전쟁과 몽금포 보복작전에 대하여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6) 오진근·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참조.

오켜 세운 UN군이 신속히 참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분기점이라고 사가들이 말하는 6·25전쟁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고미증유(前古未曾有)의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중 어느 한 순간도 나라의 안위(安危)와 직결되지 않은 시간은 없으나 특히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의 손에 넘어간 초전(初戰) 3일 동안은 필자의 생애(生涯)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긴박한 순간들의 집적(集積)이었다.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박옥규 작전국장을 대동하고 함정구매 차 도미 중에 일어난 실전(實戰) 상황에서 당시 정보감인 필자는 전시상황실(war room) 실장을 맡아 참모총장 직무대행 김영철 대령을 보좌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전황 대처에 먹고 자고 화장실에 가고픈 생리적 욕구조차 느낄 새가 없었다. 전시상황에 모인 해군 수뇌부들은 육군이 과연 언제까지 서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T34 탱크 200대를 앞세운 인민군 10개 사단병력이 물밀듯 쏟아져 내려오는데 탱크를 막을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육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T34 탱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놀라움과 답답함이 교차되는 침통(沈痛)한 분위기 속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만 했다. 대한해협해전, 웅진반도에 고립되어 전멸 위기에 처한 육군 제17연대 구출작전, 한국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금괴 1.5톤, 은괴 2.5톤) 지출 문제, 동서해 경비부 철수문제 그리고 해군 본부 작전통제권을 예하부대 이양시기 결정 등 해군 작전본부로서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 상황들이 시시각각 다가왔다.

특히 해군의 수뇌부를 최고조로 긴장시켰던 대한해협해전은 1950년 6월 25일 주문진과 삼척 부근에 상륙하는 인민군을 저지하기 위해 진해통제부로부터 동해로 긴급출동하던 백두산함이 부산 동북방 공해상을 남하하던 수상한 괴선박(怪船舶)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백두산함은 전쟁발발 약 8개월전 1949년 10월 17일 미국으로부터 구매·도입하여 3인치(76밀리) 주포를 장착한 것으로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다.<sup>7)</sup> 6월 25일 오후 8시 12분, 백두산함이 동해로 향진 중 정체불명의 선박을 발견하고 해군본부에 보고했다.

7) 백두산함은 1949년 10월 17일 미국에서 구매·도입되어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도착했다. 함정은 해군이 조선사 또는 구매처로부터 인수 또는 구매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군의 자산으로 산정한다.

“부산 동북방 약 50km 공해상에서 정체불명의 괴선박 발견”

“크기는 1,000톤급, 형태는 수송선, 정남향으로 시속 12노트로 항진 중. 계속 되는 검문에 일절 응답 없음.”

이 정보는 즉시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정체를 확인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해군본부 작전회의는 공해상이라도 검문에 불응하는 선박이라면 나포하거나 강제 정선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만약 제3국의 선박일 경우를 고려하여 선박의 정체, 특히 국적을 확인하라는 명령만을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백두산함의 보고를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되었다. 백두산함이 괴선박에 접근해 탐조등으로 확인해 보니 선명도 국기도 없이 선수 쪽에 대포로 보이는 커다란 물체가 포장으로 가려져 있고 중갑판 양 쪽에는 중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갑판 위에 많은 병력이 실려 있다고 보고해 온 것이다. 순간 필자는 맥아더라인 경비시절 야간 검문·검색하던 때가 생각이 났다. 무장선박에 접근해 탐조등을 비추는 것은 아군의 위치를 확연히 노출시키고 아군을 향해 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 행위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적도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으니 선제공격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해도를 응시하고 있던 참모총장 직무대리 김영철 대령의 굳게 다물었던 입에서 마침내 비장한 명령이 떨어졌다.

“괴선박을 격침하라. 성공을 빈다.”

즉시 해도 상에서 백두산함의 현 위치에 ‘격침’이라는 붉은 표식을 하였고 당직사관은 시간과 경·위도를 기록했다. 이 명령은 국방부에 바로 보고되었다. 6월 26일 0시 10분, 괴선박 발견에서부터 꼭 4시간이 지나서였다.

“격침 명령을 내렸다고 괴선박이 침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전회의 멤버 가운데 최 연장자인 김일병 대령(인사국장)의 이 말 한마디는 상황실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배의 크기로 보나 확인된 화력으로 보나 낙관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살은 이

미 시위를 떠났다.

“함 소령, 백두산함 부장이 송석호 소령이지요?”

김일병 대령의 질문은 송석호 소령이 필자와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 아니냐는 뜻이었다. 기관장 신만균 소령도 동기생이라고 대답하자 김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졸업 당시 해사교장이었던 그는 늘 우리 1기생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새삼 스승의 따듯한 정이 느껴졌다. 설 새 없이 들어오는 전황을 분석·처리하면서 필자는 전쟁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격침명령이 하달된 지 얼마 안 있어 “적선 좌현 3마일 거리에서 3인치포 10발을 발사했음. 그 중 5발 명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뒤이어 “적선도 57미리, 37미리 포와 중기관총으로 응사함. 피아 치열하게 교전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적의 포탄이 백두산함 조타실을 관통하며 나침반을 부수고 3명의 승조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김종식 소위는 왼쪽 발꿈치가 날아갔고 이등병조 전병익, 삼등병조 김창학은 복부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군의관 김인현 중위의 응급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두 사병의 전사 소식을 접한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우리는 바람에 지는 꽃잎처럼 거친 남해 바다에 새파란 젊은 목숨을 바친 두 영웅들을 위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었다. 한 시간쯤 지나 백두산함은 적선 기관실에 3인치 포탄 5발을 명중시켰다. 적선 마스트가 파괴되어 좌현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어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상황실 시계는 6월 26일 오전 1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 해군이 전쟁 초기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거둔 이 전과는 단순히 부산을 지킨 것만이 아니다. 38선이 일시에 무너지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에 넘어간 당시 전황에서 600여 명으로 추정(推定)된 북한 특수부대가 6·25전쟁 시 최후의 보류였던 최대의 항구 부산까지 유린했다면 6·25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 지는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6·25전쟁 중 미 제8군사령관으로 전선에서 싸웠고 사랑하는 외아들 ‘지미’를 바로 6·25전쟁 전선에서 잃은 6·25전쟁의 영웅 밴플리트 장군은 “만약 해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에 갈 수도,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다.”고 한 말은 결코 과장(誇張)이 아니다.

백두산함의 승전보는 철저한 충무공 정신의 결실이었다. 동해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출동하던 백두산함이 공해상을 지나가는 함정을 검문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전공은

더 빛난다. 공해상을 지나가는 배라고 무심히 지나쳤더라면 6·25전쟁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사 연구가들의 견해이다. 전쟁을 도발한 북한은 육상의 38선 돌파 작전과 함께 동해안과 부산 지역에 특공대를 상륙시키는 협공작전을 꾀했는데 부산으로 가던 특공대가 괴멸된 것이다.

당시 맥아더사령부 정보부에 근무했던 노만 존스는 자신의 저서 ‘한국작전’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한해협해전의 승리는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백두산 함장 최용남 중령에게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을, 기관장 신만균 소령에게 동성무공훈장(Bronze Star)을 수여한 사실이 해전이 얼마나 중요하였는 지를 잘 보여주는 무언의 평가라 할 것이다. 특히 은성무공훈장은 미국정부가 외국군에 수여하는 최고의 무공훈장이다. 우리 정부도 최용남 함장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훈장을, 나머지 장병들에게도 훈기장(勳紀章)을 수여하여 그들의 전공(戰功)을 높이 평가했다.

### Ⅲ. 6·25전쟁과 대한민국 해군작전 성과<sup>8)</sup>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위해 남침을 자행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황 하에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군 남침을 격퇴시키는 데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특히 참가한 유엔군 해군과 함께 수송작전과 북한군을 측면 공격하는 등의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서해와 동해를 활용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키는 데 큰 성과를 내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할이자,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이었다.

#### 1. 육군 제17연대 구출작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 8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그리고 1개 싸마호트대대(자주포)의 기습공격을 받은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는 17연대는 필사적으

8) 임성재 외 3명 공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계룡: 해군본부, 2012) 참조.

로 대항하였으나 인민군의 막강한 화력과 3배에 달하는 병력에는 이를 격퇴할 방도가 없었다. 개성 쪽 퇴로가 막힌 연대 병력은 해안으로 밀려나 독 안에 든 쥐 꼴이 되었다. 웅진 강령 지역에서 이틀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제17연대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 해군의 구출작전이 시작되었다.

해군의 유일한 수송선 LST-801함(함장 : 김옥경 대위)이 당시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바로 제17연대 철수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LST 801함은 제17연대 주력을 인천으로 후송했다. 연대장 백 대령은 주력부대 철수를 지원하는 정규한 대위 부대(제12중대)를 최후까지 지휘하여 801함의 출항을 확인한 후 어선으로 연평도로 탈출하여 해군 JMS-307정(정장 : 소령 백운기)에 의해 육지로 철수했다.

## 2. 한국은행의 지금(地金) 방출

한국은행 소장 귀중품인 지금(금괴, 은괴)을 운반하는데 국방부 제3국장(군수·경리담당)이던 김일환 대령의 공로가 컸다. 당초 이 임무를 해군에 요청하였지만 필자는 서울 남쪽 안전지대까지는 육군이 이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군은 한국은행 대전지점까지 운반하고 해군이 대전 지점에서 금은괴가 든 4톤 분량의 89개 상자를 인수하여 진해 보급창으로 이송하여 보관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이 위협해지자 해군의 건의를 받은 정부의 지시로 금은괴는 다시 충무공정(정장 : 이종철 소령) 편에 부산으로 이송되었다.

뒷날 알게 된 일이지만, 이 금은괴는 미국의 권고로 1950년 8월 1일 샌프란시스코 행 선박에 실렸다. 부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을 떠난 금은괴는 다시는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5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창설될 때 한국은 이 금은괴를 처분해 기금 출자금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됐을 때 필자는 그때의 금은괴가 떠올라 착잡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 3. 해군본부 작전통제권 예하부대 이양

정부의 서울 철수계획에 따라 1950년 6월 27일 오전 7시를 기하여 해군본부 작전지휘권을 진해통제부사령장관(후에 사령관으로 개칭) 김성삼(金省三) 대령에게 이양했다. 그리고 작전과 정보부서는 참모총장 직무대리 김영철 대령과 함께 정부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고 이외 부서는 진해로 내려갔다. 대전의 해군본부는 7월 8일 오후 2시를 기하여 진해통제부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환수했다.

미 대사관 무관실을 통해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Joy) 제독이 한국 해군 지원을 위해 마이클 루시(Michael J. Luosey) 중령을 부산에 파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필자는 6월 30일 참모총장 대행 김영철 대령을 수행하여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 제1부두 미 해군 함상에서 열린 한미해군회담에서 김영철 대령은 대형 함정과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측은 1950년 10월에 우선 2,000톤 급 PF(호위함) 두 척을 양도해 주었다. 61함과 62함으로 명명된 이 함정들이 취항한 뒤에 63함과 65함이 도입되었다. 62함은 뒤에 원산만에서 작전 중 충돌 사고로 퇴함되고, 충원전력으로 66함이 도입됐지만, PC 4척과 소해정 밖에 보유하지 못했던 우리 해군은 일거에 호위함 급 함정을 4척이나 갖게 되었다.

이토록 부산에서의 업무가 많아지자 해군본부는 대전 국방부에 연락관실만 남기고 7월 10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진해로 분산되어 있던 해군본부 국감실들도 부산 해군본부로 들어왔다. 미 해군고문관 루시 중령은 유엔해군 편성 상 1950년 7월 10일부터 한국해군(CTG 96.7)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한국해군사령관 겸 한국 해군참모총장 고문관 역할을 병행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해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지휘는 한국의 해군참모총장(CTE 96.70)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6·25전쟁 초기 타군의 상황은 동해의 괴선박 대처(대한해협해진)에 긴장 상태가 최고도로 고조되고 있던 상황실에 “수도를 방어하던 육군 제1사단이 인민군에게 완전 포위되었다.” “공군은 해산했다.” 그야말로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려운 첩보들이 날아들었다. 작전상황실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후일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그동안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각자 살길을 찾아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끝까지 싸우자. 병력을 잘 챙겨서 한강

남쪽으로 가자. 1차 목표는 시흥이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시흥이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지리산에서 만나 게릴라가 되어 적과 싸우자.”

6월 28일 오후로 접어들던 무렵, T34 인민군 전차가 서울 시내를 질주(疾走)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이때 파주 봉일천국민학교 제1사단 전방지휘소(CP)에서 인민군에게 퇴로가 완전 차단된 수도를 방어하던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의 비통(悲痛)한 철수명령이다.

“나는 한국은행에서 예금 잔금을 모두 찾아와 국장 30만원, 과장 20만원, 계장 10만원씩 직원들에게 송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30만원 짜리 봉투 하나가 부족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봉투 두 개를 가져간 것이다.”

장지량 공군작전국장(당시 공군소령)이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전역 후인 2005년 5월 3일 국방일보에 ‘6·25전쟁 발발과 공군 해산’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다.

#### 4. UN 해군작전과 한국 해군

6·25전쟁 당시 유엔해군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크게 내세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필자는 ‘전쟁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비유할 때 한국해군은 하나의 부속품이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몇 만 원짜리 타이어가 없으면 굴러가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한국해군은 무기와 장비,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없는 가난한 군대였다. 그러나 좋은 타이어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This is not your war but ours”

6월 27일 대전에서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트(E. F. Drumright) 참사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내용과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라고 한 말이다. 이날은 정부가 수도를 대전으로 이동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전쟁?”

바로 UN군의 참전을 말한 것이다. UN군의 해군작전은 6·25전쟁의 흐름을 주도했다. 전쟁 초기 6개월 동안에 감행된 인천, 월산, 흥남 등지에서의 상륙작전, 철수작전 그리고 소해작전, 해상수송작전 등이 해군의 주요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전들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해양국가라는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작전들이다. 6·25전쟁은 육지에서 붙은 불을 바다에서 끈 전쟁이라고 한다. 국토의 대부분이 전쟁발발 초기 적진에 떨어지면서 만회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해양세력(Sea Power)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방어전의 전황을 극적으로 전환시킨 인천상륙작전 역시 해양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맥아더 장군 스스로도 ‘5000대 1의 도박’이라고 말한 인천상륙작전에서 우리 해군은 주로 연안봉쇄작전과 첩보작전을 수행했다.

해본작명갑 제93호에 따라 이희정 중령(PC-702 함장)은 서해에서 작전 중인 함정들의 승조원으로 임시 상륙부대를 편성하여 덕적도, 영흥도, 대이작도, 팔미도 등 인천 근해 도서들을 점령했다. 이 성공적인 작전을 미 해군은 이희정 중령의 성을 따서 ‘이 작전(Lee Operation)’이라고 명명했다. 팔미도에는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서해봉쇄작전사령관 영국의 앤드루스(William G. Andrews) 제독은 휘하의 캐나다 구축함 아다바스칸(Athabaskan) 함장에게 팔미도 등대 내 통신시설을 조사하고 그 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8월 20일 구축함 아다바스칸 상륙팀이 팔미도에 상륙하여 등대 내 통신시설을 파괴했다.<sup>9)</sup>

한편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으로부터 극비 첩보작전 임무를 받은 필자는 정보국 소속 김순기 중위, 임병래 소위, 장정택 소위를 팀장으로 하는 3개팀 17명으로 첩보부대를 편성하고 8월 중순 이희정 중령이 점령한 영흥도에 부대 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적 치하의 인천과 경인지구에서 바로 작전을 개시했다. 당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항공사진 촬영이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감청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 즉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해야 하는 ‘인간정보(HUMINT : human intelligence)’ 수집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월미도와 인천 해안 방어

9) On the 20th a landing Party from Athabaskan destroyed the radio gear in the lighthouse on Palmido.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p.185.

시설에 대한 정보였다. 다행이 시민들의 애국적인 협조와 포대 공사장의 인부로, 때로는 인민군 군관 복장으로 위장하여 적진에 뛰어든 대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첩보수집 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수집한 정보는 해군본부를 경유하여 동경의 맥아더사령부로 전달되었다. 9월 1일 미 해군 클라크 대위 일행이 영흥도에 도착하자 모든 정보는 그 팀을 통해 맥아더사령부로 보고되었다. 클라크 대위 팀은 한국인 통역관 2명, 미 육군소령 1명, 그리고 통신하사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클라크 대위 일행에 대한 미 해전사 기록의 일부이다. 1950년 8월 31일, 클라크 대위는 두 명의 통역관과 영국 구축함 채리티함으로 일본 사세보항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아침 한국 해군 PC-703함(함장 : 이성호 중령)으로 옮겨 타고 그날 해질 무렵 인천에서 약 13.8마일 떨어져 있는 영흥도에 잠입했다.<sup>10)</sup> 두 명의 한국인 통역관은 연정 해군 소령과 계인주 육군 대령을 지칭하고 있다. 미 육군 소령은 며칠 후 영흥도를 떠났으며, 통신하사관은 임시 장교계급으로 근무했다. 9월 1일 클라크 대위가 영흥도에 도착했을 때, 함명수 소령이 지휘하는 첩보부대는 적의 인천 방어태세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었다.<sup>11)</sup>

인천상륙작전 D-Day를 하루 앞둔 8월 14일 적에게 허를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첩보부대가 인민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정규군에 대항할만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첩보대원들은 인민군의 대적이 되지 못했다. 쫓기고 쫓겨다다른 곳이 십리포 해변, 더 이상의 퇴로는 없었다. 이 전투에서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이등병조가 전사하고 많은 도민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한 대학 1학년생 임승령(林承烈)은 198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진두리에서 인민군과 싸우다 10여 리를 후퇴하여 십리포 쪽으로 갔는데, 적은 개미 떼처럼 쫓아옵니다. 민간인인 나와 몇 사람은 숲 속에 숨었는데,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병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판단했던가 봐요. 흥 병조는 소총으

10) On 31 August Clark and his two interpreters sailed from Sasebo aboard HMS Charity, and transferred next morning to the ROK PC-703, By nightfall that evening, Clark's party was ensconced on Yonghung Do island, a scant 13.8 mile from Inchon itself.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Naval Institute, 1957), p. 88.

11) By 1 September, when Lieutenant Clark arrived at Yonghung Do, Consider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fense of Inchon had been collected by intelligence team under Lieutenant Commander Hahm Myoung Soo, ROKN,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185.

로 추격해오는 적을 사살하다 총구를 가슴에 대고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 자결합니다. 임 소위도 45구경 권총으로 적 3명을 거꾸러뜨리고 권총을 이마에 대고 자결하고요. 이렇게 두 분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자결하는 것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 속에서 똑바로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두 분은 자결 직전에 모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sup>12)</sup>

정부는 그들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고, 미국 정부도 은성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이장되어 임병래 중위는 19묘역 5판 063호에, 홍시욱 하사는 21묘역 1448호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임병래 중위는 1999년 8월, 홍시욱 하사는 2005년 9월 ‘호국 인물’로 선정되었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첩보부대 본부가 있었던 영흥도에 전적비를 세워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렸다. 또한 2009년에는 첩보부대(UDU) 출신들이 월미도에 첩보부대충혼탑을 건립하여 산화한 전우들의 애국충정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 첩보작전은 문화방송을 통해 1980년 10월 1일부터 45일간 방송되었는데,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가 장렬히 산화하는 장면도 소개되어 있다.<sup>13)</sup>

“어서 가십시오. 어서요. 적입니다. 어서요! 임 소위님. 가시라니까 제발! 순간 홍시욱은 총을 자기 갈비에 겨냥했다. 자, 이제 이제는 가실 수 있죠? 가세요. 홍시욱 이등병조. 그는 숨을 거두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임병래 소위가 아직도 뜨거운 흥 병조의 시신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다가오는 적의 무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해 쏟아져 오고 있었다. 홍시욱은 왼쪽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추격하는 적을 피해 도주한 지 거의 두 시간. 두 사람은 기진해 있었고 몇 차례의 교전으로 실탄마저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래서 절망한 것일까. 그래서 해군 이등병조 홍시욱은 그래서 삶을 포기한 것일까. 임 소위는 다시 홍시욱 이등병조의 시신에 무릎을 꿇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임병래 소위는 죽음의 그림자가 한발 한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임 소위는 모래밭을 짹짹 밟으며 다가오는 인민군을 향해 한발 한발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 돼 있었고, 적개심에 불타는 눈동자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1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3편, ‘영흥도첩보전’, 1983년 11월.

13) 이 방송테이프는 현재 해군본부에도 보관 중에 있으며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1980년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방송된 비화 한국전쟁 제1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17인의 결사대 테이프입니다. 문화방송 제작진은 당시 결사대를 만드신 함명수 제독님께 이 테이프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장군께서 보여 주신 용기와 애국심이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龜鑑)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팅길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권총을 들고 있던 임병래 소위의 두 팔이 모래 위에 떨어졌다. 끈적거리는 피를 손바닥에 느끼며 임병래 소위는 권총의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천천히 겨누었다. 대한민국 만세!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젊은 병사들의 사연을 파도여, 너는 아는가?”

## 5. 해상수송작전

UN 해군작전과 관련하여 뉴스의 사각지대(死角地帶)인 해상수송작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소총 한 정 만들지 못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 유엔군 병사 1명의 초도 장비는 5톤이고 병사 1명에게 지급되는 하루 보급품도 64파운드나 된다. 이를 위해 유엔군 연병력 590만명, 5,500만 톤의 화물(Dry Cargo), 2,200만 톤의 유류가 해상으로 수송되었다. 이 7,700만 톤의 물자 중에는 민수용 원조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을 아사 위기에서 구한 미국의 원조 양곡을 적시적소에 수송, 공급한 것은 우리 해군의 역할이 컸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물자나 병력은 공중으로 이송되었지만 극히 제한되었다. 이는 1톤의 물자를 공수하는데 소요되는 4톤의 항공유는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형 수송선이 물자를 하역할 항구가 절대 부족하였는데 이 문제 해결 또한 한국 해군의 몫이었다.

1950년 10월 하순경, 해군본부 작전회의에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조이 제독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었다. 워커 장군은 “미 제8군은 연료가 없어 일부 자동차가 멈춰 섰고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레이션(식량)을 하루 두 끼로 줄였다.”고 보급품 부족을 전하면서 하루 빨리 진남포 소해작전을 끝내 해상수송작전을 전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군이 평양을 함락해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때였다. 6·25전쟁에서 항공세력(air power)도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해양세력(sea power)은 한반도 작전에서 근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만약 해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에 갈 수도,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다.”고 한 밴플리트 장군의 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충남도지사 관저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전세가 악화되자 지상교통의 혼잡으로 한국해군의 JMS-514정으로 부산으로 이동했다.<sup>14)</sup>

14) 1950년 7월 1일 JMS-514정(정장 : 주철규 소령)은 이승만 대통령 일행(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김장홍 경무대 경찰서장, 황규면 비서)을 태우고 오후 2시경 목포항을 출항, JMS-309정(정장 : 김남교 소령) 호위 하에, 7월 2일 오전 11시 부산에 도착했다.

#### IV.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동맹 공고화<sup>15)</sup>

베트남전 파병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필자는 베트남 전선은 우리 휴전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육군 소장의 통제 하에 있는 백구부대에 LST 3척과 LSM 2척을 배속시키고, 우리 구축함 충무함(DD-91) 편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1966년 5월 31일 사이공에서 백구부대사령관 이응기 대령에게 백구기를 수여했다. 이 역사적인 행사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기수단으로 대동했다. 이 행사에 필자를 수행한 정보참모 김규섭 대령, 충무함 함장 김종곤 대령, 생도기수단의 장정길 사관생도는 훗날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구부대의 임무는 긴 해안선을 따라 요소마다 산재한 남베트남군과 미군 부대에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었다.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봉타우·판티엣·나트랑·퀴논·추라이·다낭 같은 곳에 탄약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남베트남 해군에는 그런 수송능력이 없기도 했지만 있다고 해도 맡길 수 없는 실정이었다. 왜냐하면 남베트남군은 베트민(월맹)과 베트공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급품이 제대로 부대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해군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많은 작전 중에서 판티엣트 작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판티엣의 미군 제트기대대가 연료 고갈로 위기에 처했을 때 백구부대의 LSM-611함(함장 : 오경환)은 해도에도 없는 해안에 1,500드럼의 연료를 성공적으로 수송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등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베트공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 그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우리 해군의 판티엣 수송실적은 월미함(LSM-609), 능라함(LSM-611) 등 LSM 10척에 의해 모두 48차례나 있었다.

베트남에 머무른 일주일 동안 필자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 부대방문에 이어 티우 남베트남 대통령을 만났다. 베트남전쟁 전망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그는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전쟁 당사국 지도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귀국 길에 대만에서 만난 장개석 총통의 생각은 티우 대통령과 크게 달랐다.

15) 임성채 외 2명,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4.) 참조.

“미국이 그렇게 많은 전비(戰費)를 쓴다는 것은 초현대적인 첨단장비를 동원한다는 뜻일 것이요. 그런데 월맹은 맨발로 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전쟁의 결말은 결국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요.”

티우 대통령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하루 1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는 필자의 말에 장개석 총통은 ‘국민의 사기가 전쟁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그의 혜안(慧眼)이 적중했다.

베트남전쟁에서 우리 해군 예비역들의 활약도 컸다. 해군 전역 장병들이 미국의 군수물자 수송서비스 기관인 MSTS(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선박에 선장, 기관장, 선원으로 대거 승선하게 되었다. 주월미군에 대한 해상수송은 미국의 MSTS 선박들이 전담했는데, 우리 해군에서 전역한 장병들이 미군들의 해상수송 업무를 수행했다. 6·25전쟁에서는 일본인들이 미군들의 해상수송 업무를 맡았던 것처럼 베트남전쟁에서는 한국인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1966년 당시 MSTS 선장의 월급은 680달러였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못 되던 시절이다.

MSTS는 미 해군장관 소관이다. 필자는 1966년 1월 13일, 미 국방부로 닛체(Nitse) 해군장관을 방문했다. 필자에게 미 공로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필자는 한국해군의 예비역 장병들이 MSTS 소속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그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닛체 해군장관의 결심에는 주한미 해군사령관, 미태평양군사령관 그리고 미해군참모총장의 도움이 컸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종이호랑이’라고 세상의 조소(嘲笑)를 받았고 우리는 남베트남 공산화에 고무(鼓舞)된 북한의 제2남침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국회는 6·25전쟁 참전국에 감사사절단을 파견했다. 필자는 국회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미국반에 속했는데 전 국방장관 최영희 장군을 단장으로 정래혁 장군(국방부장관 역임), 김창규 장군(공군참모총장 역임), 강기천 장군(해병대사령관 역임)과 함께였다. 자유 베트남 공산화 직후 1975년 6월 25일 포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우리 일행을 맞아 로즈 가든 행사(Rose Garden Ceremony)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한미 방위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천명(闡明)했다. 이어서 대통령 직무실(Oval Office)에서 6·25전쟁 참전 미 상하의원들과의 환담은 매우 유익했다. 그들은 미군이 베트남 정글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한국군의 도움을 미국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의 젊은이들이 피로 맺은 전우애(戰友愛)

는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V.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잠수함 필요성

6·25전쟁과 베트남 정글에서 전우애로 다져진 한미연합전력이 오늘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중 UN해군에 기뢰전으로 도전한 북한이 핵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날 그 위협은 차원이 다르다. 핵보유국이라고 계속 과시(誇示)하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소형 경량화 된 핵탄두 개발에 광분(狂奔)하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체계의 완성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엄중한 안보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 본다. 필자는 비대칭무기체계의 꽃인 원자력잠수함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잠수함의 가장 큰 매력은 우수한 기동력과 은밀성에 있다.<sup>16)</sup> 적의 영해 깊은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위성으로도 탐지하기 어렵고 잠대지(潛對地)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미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클랜드해전에서 영국의 원자력잠수함 키클러함은 중형무진 활약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미 정보기관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362이라는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 있었으나 착수하기도 전에 좌절되었다.<sup>17)</sup>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2015년 현재 두 번째 원자력잠수함이 전력화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20% 미만으로 농

16) 디젤잠수함과 원자력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속도와 장기간의 잠수능력이다. 원자력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40여 일 만에 돌 수 있다. 물론 40여 일 동안 물속에서 식품이나 연료보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디젤잠수함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40여 일이 걸린다. 중간에 연료와 식품을 몇 차례 공급도 받아야 한다.

17) 2004년에는 해군본부 내부에 원자력잠수함사업단이 만들어졌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리나라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자력잠수함사업은 보류되었다.

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 농축우라늄은 원자력잠수함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세계 5위 원전 강국이다. 비록 잠수함 건조와 잠수함 함대의 역사는 일천(日淺)하지만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적·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Ⅵ. 맺는 글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해군에서 모범사례로 삼는 성공적 모델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 미국 해군만이 아닌, 주변국 해군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은 창군과정, 6·25전쟁 그리고 북한의 해양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노력한 결과이다. 실제 대한민국 해군은 빠른 발전 속도와 함께 전력 수준도 크게 올랐다. 이를 위해 이제 인생 마감을 앞두고 있는 필자가 한국 원자력잠수함 필요성을 마지막 과제로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 지도자에게 제안한다.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해군 및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 해군에게 잠수함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미국 해군 지휘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부대를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고 말한다고 한다. 어찌 잠수함만이겠는가. 이지스구축함, 프리깃함, 유도탄고속함 등이 모두 우리의 기술로 건조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잠수함뿐만이 아닌, 수상함 그리고 항공기 모두가 세계 해군이 배워야 할 성공사례이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호국정신을 이어 받은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았다. 아울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받치나이다.”라는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의 보국위민(保國爲民)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이제 창군기와 6·25전쟁 그리고 수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겪은 필자는 창군 주역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원로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 수중, 공중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후배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존경까지 한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이 핵무기도 모자라 핵무기를 해양에서 발사

하는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대에 걸친 정권을 계승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아직도 이러한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을 모르고 무모한 해양도발을 자행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원자력잠수함을 확보하여 수중으로 날뛰는 북한을 수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잡아 두어야 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모한 해양도발을 억제시키고 역내 주도국가로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필자는 회한의 뒷길로 가고 있다. 바라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해군 후배들 중에서 충무공 이순신 제독과 같은 위대한 위인들이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 주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오진근·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 함명수, 『바다로 세계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 임성채 외 2명 공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4).
- 임성채 외 3명 공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 백선엽, 『군과 나』 (서울: 시대정신, 2009.).
-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Naval Institute, 1957.
- Field Jr.,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Abstract

## Reflecting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Republic of Korea Navy

Hahm Myung - Soo\*

The Republic of Korean Navy (ROKN) started from scratch. However, ROKN demonstrated its Blue Navy capabilities successfully to the entire world by conducting “Operation Early Dawn” at the Aden Bay, Yemen in Jan 2011. On the event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N, I would like to retrospect past gleaning from voyages and challenges we had in the past. At the very inception of the ROK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senior military leaders recognized that it had no time to spare to clean up military those were insinuated deeply by communist agents. It was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The Mongumpo Operation which was not well known, conducted by ROKN was one of the clean-up drive. The Korean War sometimes called as “a fire from land put-off at the sea”. The world famous “Incheon Landing” which reversed war situation from the Nakdong Perimeter also done by Sea Power. ROKN conducted various maritime operations including not only Incheon Landing, but amphibious operation at Hungnam, mine sweeping, sea convoy, Wonsan Withdrawal. On the same day of the Korean War started, 25th June 1950, unless the victory of the ROKNS Baekdusan (PC 701) at the Korean Strait, the waning lamp light of Korea could not be rekindl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U.N. The ROKN rescued the 17th regiment of Korean Army from the isolation at the Ongjin Peninsular and transported gold and silver bars stored at the Bank of Korea to the Navy supply deposit in Jinhae safely. ROKN special intelligence unit conducted critical HUMINT which led

---

\* Former ROKN Chief of Naval Operations

Incheon Landing success. One of important mission ROKN conducted successfully was not only transporting war fighting materials but also U.S. provided grains to starving Koreans. ROKN participated Vietnam campaign from 1960s and conducted numerous maritime transportation operations supplying materials to Vietnam military forces along the long coastal lines. Experienced Naval Officers and enlisted men who discharged and acquired as merchant marine certificate supported most of the U.S. sea lift operations throughout the Vietnam campaign. ROK-US Combined Forces which had been honed and improved its war fighting capabilities through the Korean War and out of Vietnam jungle playing key deterrent against threat from north Korea. However, those threat level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when north Korea finish its nuclear weapon ambition.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 would like to expect strong political leadership supporting nuclear submarine for ROKN.

**Key Words:** Republic of Korea Navy, Korea War, Vietnam War,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